키카욘(욘 4:1~11) 2026년 7월 12일 화란한인교회

1. 요나가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어딘가에 내뱉아졌지요. 이러한 요나 개인의 경험을 타인의 눈으로 평가했을 때, 이건 그가 죽음을 통과했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이것을 확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빗댄다면,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넌 것이라 했지요.

2. 이런 차원에서 요나서 4장을 바라보면, 요나는 오늘 초막절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가 무엇을 기념하고 있는 지는 상관없지요. 성경은 단지 요나가 초막을 짓고 그 그늘에 앉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유월절에 욥바로 내려간 것이라면, 초막절 즈음엔 그가 니느웨 성읍 동편에 나가 앉은 것입니다.

3. 요나서의 기록을 보면, 특히 4장에 들어서면서, 특이한 표현들이 갑작스레 많이 등장합니다. 그 첫째는, 방위를 언급한다는 것이지요. 특히 동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오늘 제목과 같은, 안쓰던 말을 한다는 것이지요. 박덩쿨이라고 번역된 "키카욘" 같은 단어입니다. 이건 오직 요나서에만 등장하는 특이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셋째, 4장에 와서는 그런 표현들이 매우 극단적으로 변한다는 점입니다. 말끝마다 죽는다고 협박하지요.

4.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노했냐면, 3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이 죽기보다 싫다는 말이지요? 8절과 9절에도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다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5.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읽는 자의 눈에는 자꾸 요동치는 자만 부각됩니다. 요나만 보이지요. 또 그런 식으로 번역된 것을 읽으면, 요나가 정말 주인공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글의 히브리적 표현들을 보실 수 있다면, 전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6. 기록된대로 읽자면, 요나가 노했다는 말은, "**큰 분노가 요나에게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를 분노하게 만들었다**"입니다. 물이 차올라서 온통 물 속에 잠겨 버렸다는 표현이지요. 이건 다름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도찐개찐이라고 하겠지만, 엄연히 주어가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도 다른 것입니다.

7. 성경의 이런 식의 표현은, 인간 요나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감정 조차도, 그가 주인이 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자기의 감정 조차 자기의 것으로 표출할 자격이 없음을 말하지요. 다른 말로, 인간은 그 감정마저 누군가에게 의존되어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8. 그래서 비록 우리 스스로 화를 내거나, 무엇에 분노하거나, 혹 거룩한 분노로 창을 들어 고스비의 배를 뚫는다 할지라도, 물론 그런 행위는 본인이 한 것이겠지만, 그 분노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특히 요나처럼 물을 통과한 자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9.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기의 사랑을 자기가 아닌 예수께 의존한다는 말입니다.

10. 이 질문과 대답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렇게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지요.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자신의 사랑 마저도 주님께 의존되어 있다고 고백한 자를 “요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1. 이것이 무슨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 말로 읽었을 때, 우리 눈에는 화를 내는 장본인은 요나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에서도 그렇지요.

12. 신자 개인의 생각과 말고 행위의 주인은, 본인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요나를 주인공으로 읽고 싶은 자들에게, 화를 내는 요나가 그 감정과 고백의 참 주인을 찾아낼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3.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화난 요나가 4:2절에서 여호와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란 말입니까? 우리 귀에 들리기로는 요나의 입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원인이 된, 하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14.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노한 채로 기도를 쏟아냈지만, 그 내용 자체로서 틀린 말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게 한 기도니까! 실수한 표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시킨 기도니까! 단지, 그 속에 기도하는 자의 성품이 약간 묻어 나올 뿐입니다.

15. 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16. 실토하는 것이지요! 무엇을 말입니까? 자기가 무엇을 전해야 할 지 요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요나가 과연 그걸 알고도 다시스로 도망갔겠느냐**?라고 물었었지요? 우리는 그때, 그가 모르고 그랬을 것이라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는 알면서도 도망간,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능력있고 능숙한 사깃꾼이었던 것입니다.

17. 그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까? 요나는 니느웨가 40일 후에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자기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니느웨로 가면, 니느웨가 어차피 회개할 것이라고 예상했지요. 그리고 그러한 회개에 하나님은, 마음이 약해져서 심판을 그만두실 것까지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니느웨가 구원바들 것까지도 알고 있었지요.

18. 그런데, 지도를 펴놓고 이 책을 읽으시면,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스는 이스라엘에서 서쪽에 있다는 것이지요. 욥바도 마찬가지, 지중해를 면하고 있는 서쪽 해안에 있지요. 그러니까,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려했다는 것은, 바둑이나 체스에서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동쪽으로 보내실 줄 알고, 미리 회피했다는 것입니다.

19. 그러니까, 요나서 기록에 나오지 않지만, 그가 서쪽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첫째 그것이 요나 스스로가 주도해서 이루고자 했다는 것과, 둘째, 요나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의지와 감정과 판단에 따른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쪽을 향한 여정이라고 부른다면, 그러한 방향이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주어가 되었을 때 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재판을 회피하려는 공평한 재판관의 선택이었던 것이지요.

20. 그런데, 오늘 4장에서, 요나는 니느웨 성에서 나가서, 5절에, "**그 성 동편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막을 지었지요. 그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에,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서풍도 아니고 북풍도 아닌, "동풍"이라고 명시했지요.

21.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풍"은 매우 익숙한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 밤새도록 불던 바람이 "동풍"이지요. 여기서, 이 글을 듣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들의 귀에는 "동쪽" 보다는 바람"이란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지칭할 때 쓰는, "루아흐 엘로힘(하나님의 바람)"의 그 바람입니다.

22. 그러니까, 요나서 4장에 동쪽이라든가, 동풍이라는 방위가 나오는 것은, 서쪽으로 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의 주인이 바뀌고 있음을 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서쪽으로 가는 것이 인간 요나의 의지라면, 그와 반대로 부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동풍이 이 일의 주어이자 주인공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23. 요나가 초막을 지어놓았을 때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소위 박덩쿨인데, 그것이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박덩쿨, 키카욘은 요나가 심거나 물을 주거나 돌본 적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키카욘을 뒤집어 쓰고 있는 자는 요나이고, 그 장소는 니느웨 성의 동편이지요.

24. 이 장면에서 우리는 초막절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날의 모습을 머리 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니느웨성 동편에 초막을 지었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도 성전산의 동쪽에 초막들이 지어졌겠지요? 그러면 그 동쪽은 어디입니까? 감람산입니다.

25.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성에서 나오셔서, 그 성을 뒤돌아보며 말씀하셨지요.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그러나 자기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에 대한 해석으로, 성전된 자기 몸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6. 그러니까, 요나의 머리 위에 있는 박덩쿨이란, 그를 대신해서 햇볕을 가리고 있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벌레가 그것을 씹어서 하루 만에 말라버렸다는 것은, 그 그늘되신 예수께서 곧 말라버리심을 가리키고 있지요. 이 박덩쿨, 나무처럼 웅장하지 않고, 연한 순처럼 올라온, 카카욘!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27. 그래서,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선교하러 가야만 한다는 것도 아니고, 또 전도받은 자들이 회개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지요. 누군가가 그 일을 친히 이루시고, 심지어 요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박덩쿨로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아닌 요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입니다.

28.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은,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29. 이걸 잘 아는 요나는, 그가 거듭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싫은 것입니다. 왜 싫을까요? 그 사랑이 자기에게 독점되지 않고, 자기가 미워하는 자에게로 뻗쳐 나가기 때문이지요. 한 마디 더 덧붙이자면, 니느웨를 사랑해서 구원해 내는 이 일에서도, 자기 자신이 주인이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도 자기의 뜻에 굴복해야 한다는 오만에 빠져 있지요. 이것이 거듭났음에도 사라지기 어려운 옛사람의 습성입니다.